



Hana Market Weekly

달러/원·엔·유로환율·금리·주식

외환파생상품영업부

2025. 2. 24

본 자료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이며, 하나은행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합니다. 또한 본 자료는 현 경제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기초 자료로 투자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며,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정확성 등을 보증한 것은 아닙니다. 본 자료는 당행의 저작물이며 사전승인 없이 본 자료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인용하거나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주간 달러/원 동향(2/17~2/21) 및 전망



주간 달러/원 동향

- 주초, 미 소매판매 부진에 연준 금리인하 기대가 일부 되살아난 가운데 환율은 달러 약세를 반영하며 하락 출발. 이어 신중한 정책 기조를 강조하는 연준 주요 인사들의 발언에 달러 강세로 전환함에 따라 반등
- 중반, 국내 증시 호조 속 외국인 자금이 유입된 데 힘입어 1430원대로 하락
- 후반, 매파적 FOMC 의사록에도 미-중 무역갈등 우려가 다소 완화한 측면이 부각되면서 소폭 하락. 이어 주 후반, 미 실업수당 청구 증가 등 부진한 경제지표와 BOJ 긴축 기대를 반영한 엔화 강세에 따른 달러 약세에 1,430원대 중반으로 하락 마감

달러/원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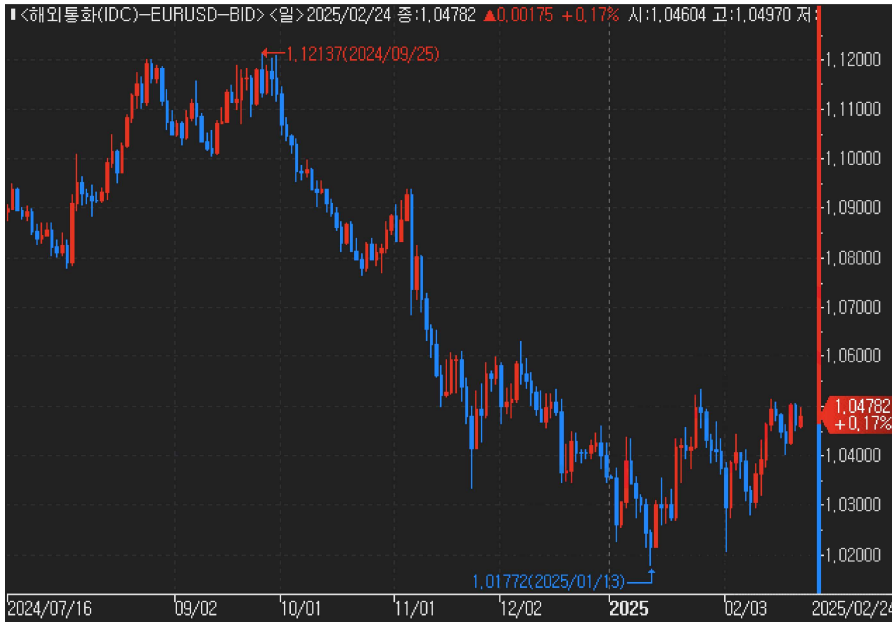
- 전주 후반, 미국 서비스업 지표와 주택지표가 예상을 하회하며 부진을 키운 측면이 경기 둔화 이슈로 불거진 양상. 이에 뉴욕 금융시장 지표가 크게 하락하며 위험회피 심리가 커진 측면이 달러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여기에 중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견 소식 여파도 확인이 좀 더 필요한 측면이 있지만 단기적으로 안전자산 선호에 영향을 미칠 요인
- 대내적으로 금주 예정된 금통위 인하 가능성 또한 원화 강세를 다소 제한하는 쪽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441.0	1,445.8	1,431.4	1,434.3	-6.7

예상거래범위
1,430원 ~ 1,445원



유로·엔화 동향 (2/17~2/21)



유로화 동향

- 초반, 금리인하를 중단해야 한다는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 발언에 달러 대비 유로화 약세로 출발
- 중반,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관련 유럽과 미국 간 갈등 지속에 약세 흐름이 이어짐
- 후반, 미 경기선행지수 부진으로 인한 달러 약세와 ECB 정책 위원의 다소 매파적인 발언에 반등 전환 후 주 후반, 2월 구매자관리지수(PMI) 예비치 하회에도 미국 서비스 지표와 소비지표 부진에 따른 달러 약세 흐름 반영하며 강보합 마감

엔화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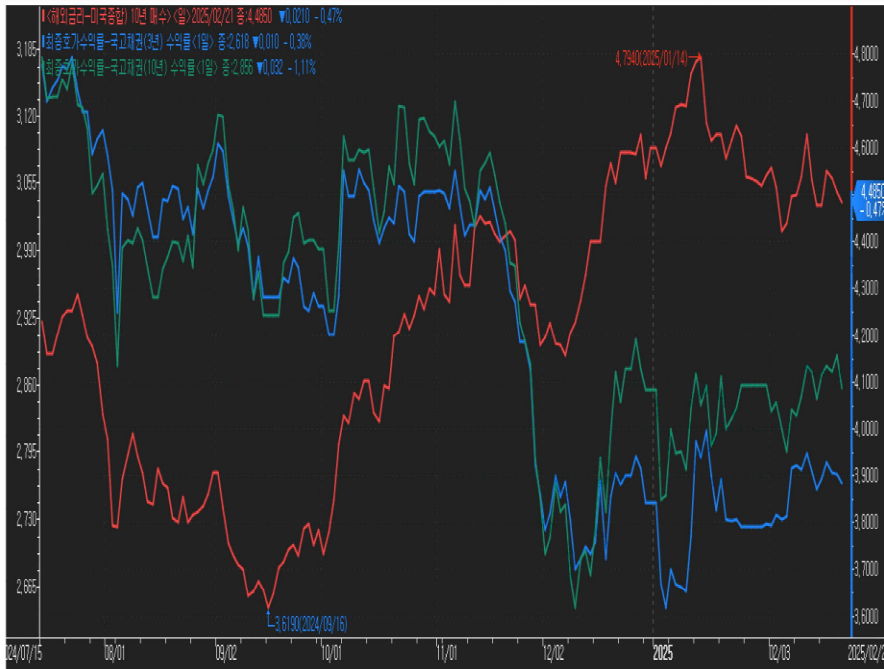
- 주초, 연준 관계자들의 신중한 정책 기조와 트럼프의 자동차 관세 예고에 강달러가 나타나면서 엔화는 약세 출발
- 중반, FOMC 의사록에서 연준이 양적 긴축 중단 가능성을 열어둔 점이 확인되면서 미 국채금리가 하락한 가운데 강세 시현
- 후반, 일본 당국이 추가 금리인상을 열어둔 점을 반영하며 강세 폭을 확대한 가운데 유로존과 미국 경기지표 둔화 및 중국에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견 소식 등으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 고조에 따라 강세 흐름 지속하며 마감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0492	1.0561	1.0400	1.0461	-0.0022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52.3	152.4	148.9	149.1	-2.3



국고채 금리 및 주간 증시 동향 (2/17~2/21)



주간 국고채 금리 동향

- 주초, 미국 전월 소매판매가 0.9% 급감한 영향으로 뉴욕 채권시장 강제 흐름이 나타났지만, 국고채 시장은 2월 금통위가 다가오면서 관망심리가 강해지는 분위기 속에 소폭 상승 출발. 이어 연준내 당국자의 물가에 대한 신중한 언급에 따른 매파 성향 반영된 분위기 속에 한은 총재의 추경 언급이 장중 변동성을 확대하는 가운데 상승세 이어진 양상
- 중반 들어,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의 매파적 발언에도 대내적 금감원장의 통화완화 기대 언급과 2월 금통위에 대한 완화적 시장 기대감 강화 등으로 국고채 금리 하락 추세 전환
- 후반 들어, 연준 의사록의 양적긴축 일시 중단 가능성 확인 등이 미 국채 금리 하락에 영향을 미친 가운데 국고채 금리도 일부 영향 받았지만 금통위를 앞두고 방향성 크지 않은 가운데 혼조 흐름. 이어 주 후반에도 금통위 기대 인하가 반영되는 가운데 글로벌 금리 하락 추세에 연동 흐름 나타내며 마감



주간 증시 동향

- 주초, 미 관세 이슈가 반복되며 시장의 피로감이 높아짐에 따라 시장의 관망 분위기가 높아지는 가운데 연기금 중심의 기관 매수세 강화 등으로 소폭 상승 출발. 이어 중부유럽 전쟁의 종전 이후 유럽 주요국 방위비 증대 필요성 부각 등에 따른 모멘텀이 국내 방산업 중심으로 전이되며 코스피 상승 견인
- 중반 들어, 외국인 투자자의 현,선물 순매수 강화 등으로 7거래일 연속 코스피 상승 흐름 지속
- 후반 들어, 연기금 중심 순매수가 이어진 가운데 최근 상승 추세 지속에 따른 차익실현 니즈 등이 반영되며 8거래일 만에 2,650대로 하락 전환 후, 주 후반, 전일 뉴욕 증시 하락 영향에도 기관 대규모 순매수 등으로 강보합 전환하며 마감